

##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단에서의 구체적인 테크닉

성충훈

스페인 · 중남미학과

### I. 들어가는 말

그간 교단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해왔다. 수업 준비를 충실히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관심을 온전히 끌지는 못함을 느껴, 이 밖에 다른 교수법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절감했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을 해 본 결과 교수들이 구체적으로 교단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단지 추상적 이론에 그친 이론서들이 태반이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조벽 교수의 명강의 비법에 관한 책을 발견하고 내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참고하여, 이론적이 아닌 실천 가능한 ‘교단에서의 구체적인 테크닉’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좋은 강의는 한마디로 ‘내용이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를 말한다. 아무리 수업 내용이 좋아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높은 학습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미있는 강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내용이 알찬 강의는 가르치는 사람이 충분한 수업 준비를 하면 가능하지만, 재미있는 강의는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몇 가지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말 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다. 또한 어렵게 기회를 찾았더라도 재미있게 말하는 테크닉이 없으면 듣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해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강의를 위해서 강사는 단적인 표현으로 ‘연극배우’가 되어야 한다. 설명해 주는 내용에 따라서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만들고,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주먹을 쥐든지, 손가락을 펴 강조하고, 학생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강한 눈빛을 보내고 목소리에 변화를 주는 등,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연극배우와 같은 입체적인 동작이 요구된다.

좋은 강의의 또 다른 요소는 수업외적인 요소를 들 수가 있는데,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교실 밖에서 맺는 학생들과의 상호 신뢰적인 관계는 학생들에게서 학습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다. ‘교수를 인간적으로 믿고 존경할 때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그 영향이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좋은 강의와 좋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실 밖에서 교수가 평소에 가지는 이미지와 교실에서의 수업 분위기가 일치가 되어 좋은 선생님 상을 이루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교단에서의 구체적인 테크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sup>

## II. 교단에서의 구체적인 테크닉

### 1. 강의 전 마음의 준비를 한다

강의 전에 기분을 정리함으로써 강의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강의 시작 전 5~10분정도 혼자 있다가 들어간다. 마음의 준비 시간이 꼭 필요하다.

---

1) 여기에 제시된 테크닉들은 강의식 교수법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발문식, 토론식, 실험, 실습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참고한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조벽, 『조벽교수의 명강의 노하우&노와이』, 해냄, 2001. 서경대 교수법연구회, 『대학교수를 위한 교수법』, 국학자료원, 1999.

## 2. 강의 시작 1~2분전에 교실에 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시에 강의가 시작한다는 예상이 수강생들에게 가능하게 되며 아울러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가벼운 대화를 나눌 시간도 가질 수 있다.

## 3. 학생들의 이름을 외운다.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학생을 개인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교수가 자신의 얼굴을 알 것이라는 생각에 수업에 덜 빠지게 되고 교수에게서 숨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 4. 교탁은 출석을 부른 후 곧 바로 한쪽으로 치운다.

교탁을 교단 한 가운데 두고 강의하면 아무래도 교탁은 교수와 학생들 간의 벽 같은 느낌을 주고, 학생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줄곧 고정되게 한다. 또한 교수도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서있는 자리를 칠판을 중심으로 좌우로 옮겨서 학생들의 눈동자를 운동시켜 준다.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약하거나 피로한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워놓은 교탁 쪽으로 가서 다리를 올려놓는 것도 가볍게 피로를 푸는 한 방법이다.

## 5. 매 수업 시간마다 교육 목적을 확실히 전달하고 강의를 시작한다.

강의효과는 학생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와 그냥 들을 때 큰 차이가 있다. 교육 목적이란 강의 주제만을 뜻하지 않는다. 교육 목적에는 학생들이 어떤 주제의 강의를 들은 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

어야 하는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6.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강의 내용을 1~2분간 요약한다.

연속극에서 첫 부분에 전편 장면을 살짝 보여 주고 시작하듯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 새 내용으로 곧 바로 들어가지 말고 지난번 강의 내용을 1~2분 정도 요약하면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수가 직접 해줄 수도 있고 학생들이 발표식으로도 할 수 있다.

## 7. 학생들에게 시선을 준다

학생에게 시선을 줄 때는 마치 그 강의실에 그 학생 한 명밖에 없는 듯이 온 관심을 집중적으로 쏟아 준다. 시선을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고 학생이 자기의 눈이 교수의 눈과 마주쳤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까지 한 학생에게 순간적으로 시선을 정지시켜야 한다.

### 모든 학생들을 살펴본다

학생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을 수시로 살펴보지 않으면 강의 내용이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따분해 하는지, 거꾸로 너무 어려워 혼란스러워 하는지를 제때제때 알 수가 없다.

### 교단에서 왼쪽도 살펴본다

대체로 오른손잡이의 특성상 교단에 서면 왼쪽을 잘 쳐다보지 않는다고 한다. 왼쪽을 의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8. 판서는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중요한 내용만 판서한다)

판서하는 동안은 침묵이 흐르고 학생들과의 교감과 대화가 단절되므로, 비록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의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니다. 판서는 가급적 프린트물로 대체하고 설명하

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린다.

### 9. 몸동작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학습 내용을 강조할 때는 검지를 세워 가볍게 흔든다든지, 굳센 의지를 심어 줄 때는 주먹을 꼭 쥐고,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 창문 밖을 쳐다보기 등의 다양한 동작을 취한다.

### 10. 목소리에 변화를 준다

학생들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진행되는 강의를 가장 힘들어한다. 단조로운 목소리로 진행되는 강의를 듣고 있으면 마치 교수가 최면을 거는 것 같다고 한다. 반면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그저 멍하게 앉아 있는 모습에 실망하게 되어 강의에 신이 나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듣기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목소리의 크고 작음, 음의 높고 낮음, 속도의 빠르고 느림에 적절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생동감이 넘치는 강의는 교수를 열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 열정은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된다.

### 11. 판서에 악센트 효과를 준다

중요한 내용의 글에 밑줄이나 원을 그리고, 화살표나 느낌표 등 다양한 부호를 사용한다. 또한 색 분필을 사용하면 시각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12. 서 있는 자리를 옮겨준다

강의 시간 내내 시선을 한 군데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가끔씩 자리를 옮기거나 가능하면 교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지나다니면 학생들의 시선 집

증을 도와주게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학생들의 눈동자를 '운동'시켜 주어 피로함을 풀어주자는 뜻이기도 하다.

### 13. 강의 시작 후 매 15~20분마다 숨들릴 여유가 있게 한다 (변화를 준다)

수업 시간이 경과할수록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교수는 학생들이 강의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매 15~20분마다 날씨나 오락 등에 대한 약간의 가벼운 잡담을 하거나, 앉아서 기지개를 켜는 등 가벼운 몸풀기를 하여 숨들릴 여유를 주면 강의 시간 내내 상당히 높은 집중율을 유지할 수 있다.

### 14. 가장 중요한 내용을 부각시킨다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한다)

훌륭한 강의를 하려면 강의의 핵심 메시지를 세 번 반복하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메시지는 반복함으로써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 15. 칭찬을 구체적으로 한다

'좋다, 잘했다' 등은 모호한 칭찬이므로, '적절한 예를 들어주어서 좋다, 이유를 말해 주어서 좋다, 질문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다' 등으로 구체적인 칭찬을 해준다.

### 16. 몇몇 학습자들의 부정적 감정에 자극 받지 않는다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아주 불량하다. 졸거나 잠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강의실에 앉전히 앉아있기는 하나 눈에 초점이 없고 얼굴에 표정이 없다. 이럴 때 교수는 수업에 대한 열의가 아

주 떨어지고 실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자극 받지 말고 끝까지 수업을 잘 마무리 해야한다.

### 17. 강의의 끝맺음 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들이 강의의 종료 단계시 주의 집중이 다시 강의 초반부와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1분만 더, 마지막으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끝맺음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III. 맺음말

강의의 질을 높이하고자 관심이 있었던 교수라면 위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미 몇 가지를 적용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좋은 교수법의 개발은 끊임없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출발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를 듣는 태도가 좋지 않다고 느끼면 바로 그 이유를 분석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추상적인 교수법 이론에 연연하지 말고, 학생들의 현실에 적합한 실천적인 교수법을 적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기 중간이나 기말에 실시하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신의 수업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의 새로운 교수법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사를 받아들인다. 수업내용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심지어 과목 명마저 잊어버린 때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를 기억하고 있다. 사람이 기억되지, 강의가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sup>2)</sup>라는 말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가

---

2) 조벽, 앞의 책, 29쪽.

장 훌륭한 교수법은 교수가 강단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수법은 근사하게 포장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며 행동이다.